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04 [26~29]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고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재계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 떡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떼어먹혀? 그제, 그제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물고 엎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 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는 그만 가슴이 펴떡이고 전신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뽕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라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나온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 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갗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장만지 살갗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견디는 것도 금년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

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글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갯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 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빴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예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 칠에 삼십에 오요,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 년 거치 오 년 상황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 이올습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붙안아야 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 떡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 부 오 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은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은 상황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과 ㉡은 반어적 기법을 활용해, ㉠은 인물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은 인물들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과 ㉡은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 ㉠은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은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과 ㉡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⑤ ㉠과 ㉡은 과장된 서술을 통해, ㉠은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은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은 돈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분옥이가 느끼는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분옥이가 느끼는 설렘을 엿볼 수 있다.
- ③ ㉢: 회사에 넣어둔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봉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엿볼 수 있다.
- ④ ㉣: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길순이가 느끼는 슬픔을 엿볼 수 있다.
- ⑤ ㉤: 경리과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알게 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여공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3. 유식한 연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마련하지 않았다.
- ② 여공들 각각이 회사에 맡긴 금액의 평균은 팔백만 원이었다.
- ③ 사채 동결로 인해 여공들은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의를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 ⑤ 사채 동결 이전 여공들은 원금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경리과에서 받았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등의 이유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진다.

- ① 분옥이가 칠만 원을 모아 미용 학원에 다니려는 것에서 돈을 벌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봉자가 오만 원만 모으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 도시로 이주한 봉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사장이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원금을 사 년째 되는 해부터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길순이가 내년부터 지옥탕이 아니라 신선놀이를 하게 됐다는 것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길순이가 바랐던 긍정적인 미래의 도래를 짐작할 수 있겠군.



<보 기>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등의 이유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험겨워진다.

✓ 읽기 전 활동

해당 소설에서 등장하는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긍정적 미래를 다양한 이유로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미래는 특정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일당을 제하고 말겠다는 반장을 제쳐 놓고 관리과 직원들이 작업 감독을 했다. 짝소리 한마디 못하고 일손들을 재게 놀리면서도 가슴마다에는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그들 셋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리를 내뻗고 등을 벽에 기대 몸을 부린 채 말이 없었다. 피곤에 지쳐 풀려 버린 눈에는 물기에 젖은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 ‘피곤에 절어’ 가슴속에는 ‘먹구름’이 낀 채로 일하고 있음에 주목해서 뒷부분을 읽어나간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오만 오천 원. 삼 년에 걸쳐 모은 그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때어먹혀? 그게,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차라리 식칼을 물고 얹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만 오천 원만 더 모으면 그 가슴 조이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칠만 원으로 육 개월간 미용 학원엘 다닌다. 그리고 어엿한 미용사가 된다. ‘시다’가 아닌 흰 가운을 입고 빨간 매니큐어 칠한 미용사가 된다. 가지가지 모양의 머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고 단골을 잡고 고정적인 월급에 후한 팁을 받아 차곡차곡 모아 독립을 한다. 그때는 미장원 주인, 아니 미장원 마담. 여기에 이르면 분옥이는 그만 가슴이 펴떡이고 전신이 짜릿짜릿해지는 것이다.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뽕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랴 싶었다. 그런데 그 돈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옥이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분옥이는 5만 5천원을 3년에 걸쳐 모았는데 때어먹힌 상황으로, 7만원을 모아 미용사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한 학원에 다닐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보기>에서 언급했듯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라며 세운 것이지만, 돈을 때어먹힘으로써 완전히 뒤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자의 마음은 이 년 전 새벽에 집을 도망쳐 나오던 꼭 그런 허망한 기분이었다. 순심이의 편지만 믿고 서울 돈벌이를 작정한 나머지 겨울 새벽길을 더듬어 걸으며 왜 마음은 그리도 텅 빈 들녘처럼 허망했을까. 생전 처음 부모 곁을 떠나 말만 들은 서울로 가기 때문이거니 했지만 기차를 타고서도 그 허망한 기분은 가시어지질 않았다. 그때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허망했던 기분은 서울역에 내려서 두 눈을 뒤집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순심이를 원망하면서 절망으로 변했다. 그 절망은 견딜 수 없는 향수였다. 그러나 그 짙은 향수는 돈벌이를 강요했다. 돈을 벌지 않고서는 얼굴을 들고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었다. 집을 뛰쳐나온 변명의 구실이 없었다. 그동안 삼만 원을 모았다. 그걸 남들처럼 회사에 넣어 이자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누구누구처럼 별 계획도 없었다. 오만 원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리라 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분옥이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봉자’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봉자는 단순하게 순심이라는 친구의 말을 믿고 서울에서 돈을 벌겠다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순심이는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봉자는 집을 나와 서울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돈을 모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분옥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때인 상황입니다.

길순이는 자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홀로인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다. 열일곱에 떠난 고향. 스물한 살이니까 어느덧 사 년째가 되었다. 봉자나 분옥이보다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네들과 같이 지옥탕(염색한 천을 행귀 내는 첫 번째 탕을 그렇게들 불렀다.)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 세월을 따라, 회사 규정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신선놀이(건조된 직물을 손질하는 부서)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진종일 지옥탕에 무릎까지 담그고 서서 염색 물감의 독에 살갗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우선 돈이 필요했다. 신선놀이를 하는 축들이나 분옥이, 봉자보다 삼분의 일이 더 많은 수입을 떼쳐 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분옥이나 봉자보다도 장판지 살갗이 험하게 부르트고 습진도 고질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니 지옥탕에서 견디는 것도 금년뿐, 내년부터는 별수 없이 신선놀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금년 초에 벌써 회사 측에서는 신선놀이를 명령했었다.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관리계장에게 사정사정해서 금년까지만이라는 허락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늙고 두 동생은 어리고……. 한 달에 만 사천 원 월급에서 자취비, 사글셋방 값, 이십사 개월 오만 원짜리 갯돈 등을 제하고 나면 회사에 맡긴 칠만 원에서 나오는 삼 부 오리의 이자를 합해도 집에 사천 원을 송금하기에는 숨이 가뻐다.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묶이고……. 길순이는 또 목젓이 아프도록 침을 삼켰다.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니와 두 동생은…….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마찬가지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길순이 또한 돈을 떼였습니다. 길순이는 집에 계신 어머니와 두 동생을 위해 공장에서 돈을 벌고 있던 상황에서 돈을 떼먹혔습니다. 여기서 <보기>에서 말한 열악한 공장의 환경이 드러나는데, ‘독에 살갓이 썩거나 습진으로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도’ 돈을 벌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여공들은 자신들이 회사에 맡긴 돈과 관련된 사채 동결에 대한 정부 정책 기사를 보게 된다. 이 기사를 읽은 후 경리과로 가서 경리과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회사에 맡긴 액수는 적고 사람 수는 백칠십여 명에 달하여, 개인당 서류를 꾸며 사장님께 결재를 맡게 되면 일이 번거롭고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손해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항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시던 중 묘안을 내셨습니다. 그 묘안이란 뭐냐.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돈을 총무부장님 한 분 이름으로 결재를 맡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분배해 왔습니다. 에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일인당 원금을 평균 오만 원으로 잡고 백칠십 명이면 오 칠에 삼십에 오요, 오 일은 오니까 도합 팔백오십여만 원이 됐지요. 그 돈의 명목이 법적으로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 년 거치 오 년 상환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법은 엄중하고 인정이 없는지라 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원금을 찾게 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바이올씁니다.”

경리과장의 그런 유식한 연설을 듣고 나서도 여공들은 아무 동요가 없었다.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작업 총반장 허씨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와르르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을 힘겹게 불안아야 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여공들이 돈을 떼인 사건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하여 해당 사건에 얽힌 사채 동결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경리과장은 개별적 관리가 번거롭다며 모든 돈을 총무부장의 이름으로 결제 맡았다며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리과장의 업무 처리로 인해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경리과장은 어쩔 수 없다며 여공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사정을 알아듣기 힘든 여공들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사정을 ‘허씨’가 제대로 설명해 주자 그제서야 가슴이 무너지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날부터 공장 안에서 우중충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어느 때 없이 염색 물감 냄새가 역하게 속을 뒤집었다.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유행가 대신 긴 한숨이 꼬리를 물었다. 물속에 담긴 종아리가 못 견디게 아리고 발가락 사이가 미치게 가려워 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퍼졌다. 그전에 사장이 내놓은 이자는 사 부 오 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무부장님과 경리과장이 짜고 오 리씩 해 먹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사장은 뒤늦게 알았지만 다행히 모든 돈이 총무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당장 돌려주지 않고 장기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자 두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이다.

- 조정래, 「동맥」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결국 이러한 설명을 들은 공장 안에서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돈을 바로 돌려받을 줄 알았던 여공들이 실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해 더욱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총무부장님과 경리과장이 돈을 떼 먹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장은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에게 이득이 됨을 알고 방관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말했듯 여공들이 꿈꾸는 긍정적 미래를 특정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작품에서 드러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는 점이 여공들의 모습을 각각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나 특정 세력이 이러한 구제를 방해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보기>에서 말한 노동자들의 미래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은 돈을 떼먹은 세력과 이를 정부에서 구제 시켜주려 함에도 돈을 떼먹고 있는 공장 세력 이겠습니다.



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다.
- ㉡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① ㉠과 ㉡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은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은 상황의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 각각 ㉠과 ㉡ 모두 '먹구름'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서는 돈을 떼인 여공들의 심정을, ㉡에서는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공장의 암울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② ㉠과 ㉡은 반어적 기법을 활용해, ㉠은 인물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은 인물들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반어적 기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과 ㉡은 하던 일을 하면서도 어두워지는 인물들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 ㉡은 유행가를 흥얼거리던 공장에서 한숨 소리만이 종종 새어 나오는 것을 통해 인물들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과 ㉡은 현재형 어미를 활용해, ㉠은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은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 ㉠, ㉡ 모두 과거형 어미가 드러납니다. ㉠은 인물들의 심리 변화가 아닌 현재 심리 상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은 사건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절합니다.

④ ㉠과 ㉡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 ㉡ 모두 과거형 어미가 드러납니다. ㉠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생생한 사건의 전달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은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 해결의 단서와는 거리가 멉니다.

④ ㉠과 ㉡은 감각적 묘사를 통해, ㉠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과 ㉡은 시각적 묘사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⑤ ㉠과 ㉡은 과장된 서술을 통해, ㉠은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은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 ㉠과 ㉡은 과장된 서술이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각각 외적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 또한 아닙니다.

2.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 분옥이는 가슴을 와득와득 쥐어뜯고 싶었다.
- ㉡ 정신은 아물아물해지며 몸이 붕붕 뜨는 것이 타 보지 못한 비행기 타는 맛이 이러랴 싶었다.
- ㉢ 8월 초순, 여름인데도 마음은 꼭 겨울 새벽의 텅 빈 들녘처럼 허허할 뿐인 것이다.
- ㉣ 자꾸 눈시울이 매워져서 한사코 눈길을 천장으로 올렸다.
- ㉤ 처음 사채 동결의 소식을 들은 때와 마찬가지로였다.

① ㉠: 모은 돈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분옥이가 느끼는 답답함을 엿볼 수 있다.

→ 모은 돈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분옥이는 자신의 돈이 떼어먹힌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② ㉡: 미장원 마담이 되는 상상에 분옥이가 느끼는 설렘을 엿볼 수 있다.

→ 미장원 마담이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옥이는 이러한 상상을 할 때 정신이 아물아물하고 몸이 붕붕 뜨는 듯한 설렘을 느낍니다.

③ ㉢: 회사에 넣어둔 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에 봉자가 느끼는 허무함을 엿볼 수 있다.

→ 회사에 넣어둔 돈이 떼이자 여름인데도 마음이 허허하다는 것을 보아 봉자는 자신이 모으던 돈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④ ㉣: 어머니와 두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길순이가 느끼는 슬픔을 엿볼 수 있다.

→ 어머니와 두 동생을 위해 돈을 모아 부치고 있던 길순이는 돈이 사라지자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⑤ ㉤: 경리과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확실하게 알게 된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 여공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

→ 경리과장이 사용하는 용어나 말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공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채 동결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인 것을 보아 이들은 전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 절망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공들이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다 해서 절망감을 엿볼 수 있다는 해당 선지가 맞는 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안되겠습니다.

3. 유식한 연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 경리과에서는 여공들의 개인 카드를 마련하지 않았다.

→ '경리과에서는 여러분의 개인 카드를 비치하고' 부분을 보아 개인 카드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학평 대비 지문&문제 풀이

② 여공들 각각이 회사에 맡긴 금액의 평균은 팔백만 원이었다.

→ 여공들 각각이 회사에 맡긴 총 금액이 팔백오십여만 원입니다. 평균이 아님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③ 사채 동결로 인해 여공들은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매달 사채 법정 이자’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의는 총무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돈의 명의는 ‘법적으로 총무부장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⑤ 사채 동결 이전 여공들은 원금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경리과에서 받았다.

→ ‘매달 원금에 맞는 이자’를 지급했다고 경리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⑤

—<보 기>—

이 작품은 1970년대에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꿈의 실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식구들에 대한 부양 등의 이유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며 긍정적인 미래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가운데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험겨워진다.

① 분옥이가 칠만 원을 모아 미용 학원에 다니려는 것에서 돈을 벌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분옥이는 칠만 원을 모아 미용 학원에 다녀 미용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따라서 분옥이는 꿈의 실현을 위해 돈을 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봉자가 오만 원만 모으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에서 도시로 이주한 봉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군.

→ 봉자는 순심이의 편지를 받고 서울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왔으나 순심이가 잠적해버립니다. 따라서 그대로 돌아갈 수 없었던 봉자는 돈만 모으면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향수’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③ 사장이 총무부장과 경리과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에서 노동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사장은 횡령 사실을 알고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한 그들을 용서합니다. 따라서 사장 또한 총무부장과 경리과장과 같이 노동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세력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④ 여공들이 회사에 맡긴 원금을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찾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겠군.

→ 여공들은 회사에 맡긴 원금을 ‘삼 년을 기다리며 사채 법정 이자를 받고’, ‘사 년째 되는 해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 정책이 ‘오백만 원 이상이면 삼 년 거치 오 년 상환’을 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이 드러납니다.

⑤ 길순이가 내년부터 지옥탕이 아니라 신선놀이를 하게 됐다는 것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 길순이가 바랐던 긍정적인 미래의 도래를 짐작할 수 있겠군.

→ 길순이는 돈을 벌어 어머니와 두 동생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옥탕보다 일이 편한 대신 돈을 적게 주는 신선놀이를 내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길순이가 바랐던 긍정적 미래의 도래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길순이가 돈을 벌어 긍정적 미래를 꿈꾸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입니다.